단재 신채호 소설 〈꿈하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김현주*

‖ 차 례 ‖

1. 머리말
2. 자아인식과 분열의 공간, '꿈'의 세계
3. 인물 간의 관계로 드러나는 '한놈'의 존재양태
   1) 한놈 욕망의 대변자-여섯 동무
   2) 한놈의 초자아-꽃송이, 을지문덕 등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꿈하늘>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해석해 보았다. 서사는 꿈을 배경으로 한놈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한놈은 여섯 동무로 상징되는 본능적 욕망과 꽃송이, 을지문덕 등으로 대표되는 대의적 가치들을 조율함으로써 '인간애'를 자각해 나간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은 결국 끝없는 한놈의 자기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여정은 곧 자기에게 이르는 지난한 마음의 여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의 전개는 억압적인 현실을 살았던 신채호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인물 형상화는 작가의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들과, 결핍된 현실을 보상하려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은 현실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개인적, 역사적인 상처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한 소설적 장치로서, 본 서사는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조교수

불운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식민지 망명지식인 신채호의 자기고백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폐쇄적인 자기탐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투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문학에서 차지하는 신채호 문학의 정신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꿈, 정신분석, 무의식, 욕망, 초자아, 억압, 자기고백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 소설 <꿈하늘>(1916)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신채호 문학의 미학적 특질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신채호는 일찍이 수많은 논설과 역사전기소설 등을 통해 중화의식을 탈피한 근대국민국가 기획을 단행한 바 있다.[1] 문학, 역사, 철학 등 다방면에 걸친 집필활동과 삶으로써 보여준 그의 지사적인 면모는 우리 근대사 연구에 정신적인 뿌리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

1) 신채호 문학의 근대성과 관련한 주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현주, 「신채호의 역사 이념과 서사적 재현 양식에 대한 연구」, 상허학회, 『상허학보』 14집, 깊은 샘, 2005, 2.; 김현주, 「신채호 소설의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관한 연구 -<류화전(柳花傳)>과 <익모초(益母草)>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57호, 2010, 12.; 박중렬,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의 근대성과 계몽담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양진오, 「강요된 근대와 거대서사의 기원」, 『실천문학』 54 여름호, 1999; 오선민, 「전쟁서사와 국민국가 프로젝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차승기, 「근대 계몽기 민족주의의 성격에 관한 고찰 -저항과 지배의 변증법-」, 한국문학연구회, 『현역중진작가연구Ⅳ』, 국학자료원, 1999; 채진홍,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근대인관」,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제55집, 2005, 10.;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3; 하정일, 「급진적 근대기획과 탈식민 문학의 기원」,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채호 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외로움과 눈물의 정서를 불운한 민족 현실에 대한 울분으로만 파악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겪는 신채호의 심리적인 갈등과 반목 등을 외면해 온 면이 있다. 본고는 신채호 소설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소설의 구조들이 독특한 문학적 발상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주목하고, 이것이 신채호 자신의 무의식적 내면 탐구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꿈하늘>은 무의식 세계를 대변하는 '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2] 선행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여 서사에서 보이는 시점의 혼란, 유동적인 한놈의 나이, 시공간의 불확정성 등을 서사적 결함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사는 논리성이 배제된 꿈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인물의 자유로운 정신적 넘나듦과 시공간의 초월을 보여 주고 있어, 인물의 내면과 서사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요구된다 하겠다.[3] 말하자면 '꿈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작가가

---

2) '꿈'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몽유 서사의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출판부, 2000; 민찬, 「단재소설의 경로와 전통의 자장」, 『인문과학논문집』 34집, 대전대인문과학연구소, 2002; 박희병, 「신채호의 근대민족문학」, 『관학어문연구』 22집,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97;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권 1호,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77; 서형범, 「<꿈하늘>의 서사층위분석과 몽유양식 선택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12.; 정여울, 「꿈-서사의 민족담론과 계몽의 수사학」,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3) <꿈하늘>은 민족주의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선영은 "<꿈하늘>의 핵심적인 이념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설과 주체적 사관에 입각한 민족주의의 고취에 있다."고 하였으며, (「신채호의 민족사관과 민족문학 -<꿈하늘>에 대하여-」, 『오늘의 세계문학』, 민음사, 1976, 12, p.181.) 김병민은 "열렬한 조선의 애국자의 낭만적 형상"이라고 평하였다. (『신채호 문학연구』, 아침, 1989, p.108.) 이외, 신채호 문학의 민족주의 성격을 밝힌 논문은 다음과 같다.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95; 민병수 외, 『개화기의 우국문학 -한국

중국 망명 이후, 문학의 발표 지면을 잃은 후에 쓴 소설이다. 즉 발표를 염두에 두고 쓴 정제된 작품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자유롭게 기술한 창작물이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채호는 불운한 가족사를 경험하고, 국권 상실 이후에는 사회적 고아로 살아야 했다.[4] 그의 소설 창작은 이러한 원초적인 정신적 외상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사가 '꿈'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가의 정신적 외상이 작품 창작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꿈하늘>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신채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 자체를 반영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문학 행보를 이어갔던 인물로서 그의 문학 탐구는 결국 신채호 자신의 철저한 자기 탐구, 자기 수양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서사에 대한 연구는 작가의 무의식 세계를 밝히고 작가 정신을 재구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본다. 이는 근대문학에서 신채호가 차지하는 정신적 가치를 재조명, 심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학과 민족의식-』 II, 신구문화사, 1974; 신경득, 「단재 신채호소설의 민족주의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논문집』 제7집, 1978, 2.;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이경선,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 『한국학논집』 제6집, 한양대 한국학 연구소, 1984, 8.; 이선영, 「신채호의 민족사관과 민족문학 -<꿈하늘>에 대하여-」, 『오늘의 세계문학』, 민음사, 1976, 12.; 이선영, 「단재의 사상과 문학」, 『단재 신채호와 민족사관』,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80.

이와 달리 김현주는 <꿈하늘>의 풍자 기법에 주목하고, 이것이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카니발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어문학』 제116집, 어문학회, 2012, 6.

4) 신채호 소설에 나타나는 부성콤플렉스와 자기 치유로서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의 고아 인물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2호, 한민족어문학회, 2012, 12.에서 논의한 바 있다.

2. 자아인식과 분열의 공간, '꿈'의 세계

신채호는 장자의 고사를 빌어 "지금 천하는 꿈인지 깼는지, 어떤 것이 홀연 나이고 홀연 나비인지 스스로는 알지 못하겠다."[5]고 하면서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의 세계를 무화하고 만물의 변화를 초월하는 경지를 보여준 바 있다. <꿈하늘>은 억압적인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꿈하늘>은 본격적인 서사에 앞서 독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다. 이 글을 꿈꾸고 지은 줄 알지 말고 꿈이 지은 줄로 알라는 것이다.

> 한놈은 元來 쑴 만흔 놈으로 近日에는 더욱 쑴이 만허 긴 밤에 긴 잠이 들면 쑴도 그와 갓이 길어 잠과 쑴이 서로 終始하며 또 그뿐만 안이라 곳 멀건 대낮에 안저 두 눈을 멀둥멀둥히 쓰고도 쑴 갓흔 디경이 만허 (중략) 讀者 여러분이여, 이 글을 쑴꾸고 지은 줄 아시지 말으시고 곳 쑴이 지은 줄로 아시압소서. (513쪽.)[6]

마치 꿈을 꾸면서 "이건 꿈일 뿐이야.", 혹은 "이게 꿈이라면 좋겠다." 등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한놈은 이것이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꿈과 현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는 마음의 참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드러내는 한편, 계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를 자신의 진실에 가까운 세계로 놓고자 하는 문학적 전략으로 보인다.[7]

---

5) 신채호, <크로포트킨의 죽음에 대한 감상>, 『단재신채호전집』 제5권,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 p.413.

6) 신채호, <꿈하늘>, 위의 책, 제7권.

7) 무의식은 의식과는 다른 우리 정신의 작동 양식으로 의식과는 떨어진 곳에 우리 과거의 어떤 삽화들을 보존한다. 우리는 그 과거를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 과거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환영처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다른 형태로 언제라도 모습을

“꿈의 뜻을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꿈은 정말 아무 뜻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꿈은 도저히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꿈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꿈에 더욱 엉뚱한 해석을 내리는 수도 있다. 꿈은 그야말로 우리의 의식이 쉽게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무의식이다.”[8] 꿈은 현실에서 재구성, 해석되면서 그 진실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놈의 당부는 곧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과 같은 것으로서 억압적인 현실 세계에서 왜곡되게 구성되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꿈을 통해 읽게 된 맨얼굴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고백의 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이 글은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붓 가는 대로 쓴 글임을 강조하고 있다.

> 한놈의 이 글은 아모 排鋪업시 오직 붓끗 가는 대로 맥기여 붓끗치 하늘로 올라 가면 하늘로 짤어 올나가며, 짱속으로 들어가면 짱속으로 짤어 들어가며, 안지면 짤어 안지며 셔면 짤아 셔서 마듸마듸 나오는 대로 지은 글이니 (중략) 自由 못하는 몸이니 붓이나 自由하자고 마음대로 놀아 이 글 속에 美人보다 향내나는 꼿과도 니야기하며 평시에 사모하던 옛적 聖賢과 英雄들도 만나보며 올흔팔이 왼팔도 되야 보며 한놈이 여덜 놈도 되여 (513쪽. 밑줄은 인용자.)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자유연상기법’에 다름 아니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을 통해서 꿈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자유롭게 흐르

드러낼 채비가 되어 있다. 즉 억압된 것은 항구적으로 회귀를 모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출현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변장을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억압된 것은 최초의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결코 다시 보여주지 않는다. 기껏해야 그에 대한 ‘표상’을 제공해 줄 뿐이다. 장벨맹 노엘,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최애영 · 심재중 옮김, 동문선, 2001, p.12.

8)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8, pp.184-186 참조.

는 생각, 혹은 연상의 흐름을 말하게 되면 무의식이 드러나고 갈등이 풀리며 치료가 된다고 믿었다."[9] 한놈도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면서 자신의 무의식층을 드러낸다. <꿈하늘>은 바로 한놈이 '자유연상'에 의거하여 꿈을 서술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는 억압된 현실을 탈피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한다. 말하자면 이 글은 한놈의 자기 치료 과정을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사는 제1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먼저 한놈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 때는 檀君 紀元 四千二百四十 몃 해 어늬 달 어늬 날이던가. 짜는 서울이던가, 시골이건가, 海外 어대던가, 도모지 記憶할 수 업는대 이 몸은 어대로서 왓는지 듯지도 보지도 못하던 크나큰 無窮花 몃만 길 되는 가지 위 널으기가 큰 房만한 꼿송히에 안젓더라. (514쪽.)

한놈은 어디서 온 줄로 모른 채, 커다란 무궁화 가지 한 자락에 앉아 있다. 꽃송이는 바로 역사적 시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을지문덕의 탄식 섞인 노래에서 드러난다.

> 이 꼿이 무삼 꼿이냐
> 피엽슬음한 머리(大白頭山)의 얼이오
> 불고스음 고흔 아참(朝鮮)의 빗히로다
> 이 꼿을 붓도두랴면
> 비도 말고 바람도 말고
> 피물만 뿌래주면 그 꼿이 잘 잘하리
> 여날 우리 全盛할 때에

9)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8, p.76, p.215 참조.

이 쏫헤 구경가니 쏫송이가 크기도 하더라
한 엽흔 黃海渤海를 건너 대륙을 덥고
또 한 엽흔 滿洲를 지나 우수리에 늘어젓더니
어이해 오날날은
쏫이 이다지 여윗느냐 (516쪽.)

을지문덕은 꽃송이가 한때 발해를 건너 대륙과 만주를 지나 우수리에까지 늘어졌더니 지금은 몹시 여위었다며 탄식한다. 이에 한놈도 크게 느끼어 울음을 참지 못한다. 그는 꿈속에서 꽃송이와의 대화, 그리고 이천 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을지문덕과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역사적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한놈의 자기 대면, 자기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한놈의 자기 인식, 구현의 욕망이 꿈을 통해 역사를 상징하는 꽃과 영웅의 모습으로 재현돼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놈의 이러한 자기인식은 곧 분열을 야기한다. 역사적 가치관, 도덕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본능적인 욕망을 상당 부분 억압,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0] 이러한

10) 프로이트는 '억압'이 정신분석의 토대가 되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억압 작용으로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되고, 그 분열이 계속 유지되며 꿈과 실수와 증상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문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억압은 과거의 힘들었던 특정 지점에서 발생했던 특정한 방어 작용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인간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게 된다. 그러므로 억압은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인간이 사회적 생존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생 그의 정신 속에서 작동할 어떤 방어 작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부담을 주는 강한 외부 자극이나 내적 욕동 및 표상들이 존재하는 한 억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억압 작용이 지속될 때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서로 다른 정신 작용과 정신 내용을 지니게 된다.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13, pp.96-97.

한놈의 자기분열은 왼 몸과 오른 몸의 싸움으로 형상화된다.

> 올흔손이 졀잇졀잇하더니 차차 거저 어대써지 뻐쳣는지 그 끗흘 볼 수 업고, 손가락 다섯이 모다 손 한아식 되여 길길히 길어지며, 그 손가락 끗헤 다시 손가락이 나며 그 손가락 끗에 다시 손이 되어, 아들이 손자를 나며 손자가 증손을 나니 한 손이 멧萬 손이 되고, 왼손도 여보라드시 올흔손대로 되어 또 멧萬 손이 되더니, 홀흔손에 짤닌 손들이 낫낫히 풀은긔를 들며, 왼손에 짤닌 손들은 낫낫히 불근긔를 들고, 두 편을 갈너 싸움을 시작하는대 풀은긔 밋헤 모힌 손이 일졔히 범이 되어 아가리를 짝짝 버리며 달녀들더니, 불근긔 밋헤 모힌 손들은 노루가 되어 달아나더라. 달어나다가는 큰물이 압헤 쫙 막키여 할 일없는 디경이 되니, 노루가 일졔히 고기가 되어 물속으로 들어간다. 범들이 배암이 되야 쏘치니, 고기들은 쒱이 되어 썰썰 푸두둑 쒱이 되어, 물밧긔로 향하야 날더라. (520쪽.)

한놈의 오른손은 범이 되었다가 뱀, 매, 불덩이가 되고, 왼손은 노루에서 고기, 꿩, 큰뫼, 뫼쪼각, 구름이 되어 격전을 벌인다. “이 싸움이 한놈의 손끗에서 난 싸움이지만 한놈의 손끗으로 말니울 도리는 아조 업다.” (521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한놈의 의식이 교란되어 일어난 싸움으로, 결국 한놈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 한놈은 꽃송이의 말을 듣고 이러한 자기분열에서 벗어난다.

> “싸우거던 내가 남하고 싸워야 싸움이지, 내가 나하고 싸우면 이는 自殺이오, 싸움이 안이니라.”
>
> 한놈이 밧짝 달녀들며 뭇되
>
> “내란 말은 무엇을 가라치시는 말임닛가? 눈을 크게 쓰면 宇宙가 모다 내 몸이오, 젹게 쓰면 올흔팔이 왼팔다려 남이라 할 만하지 안함닛가?”

> 꼿송이가 날캅게 깨처 갈오대
> "내란 範圍는 時代를 짤어 줄고 느나니 家族主義의 時代는 家族이 내요, 國家主義의 時代에는 國家가 내라. 만일 時代를 압서 가다가는 다리가 씨저지고 時代를 뒤서 오다가는 머리가 불어지나니 네가 오날이 무삼 時代인지 아느냐? 씨리시는 地方熱로 强國의 資格을 일코, 인도는 部落思想으로 亡國의 禍를 어드니라."
> 한놈이 이 말에 크게 늑기여 感謝한 눈물을 썰이고 인해 왼손으로 올흔손을 만지니 다시 젼날의 올흔손이오. 올흔손으로 왼손을 만치니 또한 젼날의 왼손이러다. (521쪽.)

꽃송이는 한놈의 싸움은 진정한 싸움이 아니라 자살과도 같은 자기 소모적인 싸움이라 이른다. 그의 싸움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경계가 없는 맹목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꽃송이는 '아'의 범위는 시대를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여 한놈의 현실인식을 주문하고 있다. 말하자면 관념적인 역사애, 인간애로 비약하지 않는, 자기 안의 '비아', 시대의 '비아'부터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놈은 꿈속에서 자아인식을 하고, 또 이 속에서 분열을 경험한다. 이러한 한 차례의 마음을 교란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진정한 '비아'와의 싸움을 단행하게 된다.

3. 인물 간의 관계로 드러나는 '한놈'의 존재 양태

1) 한놈 욕망의 대변자 - 여섯 동무

꽃송이와 을지문덕의 말에 감화된 한놈은 여섯 동무를 얻어 님(神)이 가비(魔)와 싸움터로 찾아간다. 님을 도와 진정한 '비아'인 가비와 싸우기 위

해서이다. 이들 여섯 동무들은 한놈과 똑같이 생긴 인물들로 한놈의 분신들이라 할 수 있다.

> 한놈이 힘을 다하여 머리를 들고 한놈을 불으니 하늘에서
> "간다."
> 대답하고 한놈 갓흔 한놈이 나려오더라 또
> "네가 짱에 향하여 한놈을 불으라."
> 하거늘 한놈이 또 힘을 다하여 머리를 숙이고 한놈을 불으니 땅속에서
> "간다."
> 대답하고 한놈 갓흔 한놈이 소사나더라. 꼿송이가 식이는 대로 동편에 불너 하나놈을 얻고, 남편 북편에서도 각기 다 한놈을 얻은지라. 세여본즉 원래 잇던 한놈이와 불러나온 여섯 한놈이니 합ㅇ □ 일곱 한놈이러라. 낫도 갓고 꼴도 갓고 목뎍도 갓지만 일홈이 갓흐면 서로 분간할 수 업슬까 하여 차례로 일홈을 지어 한놈 둣놈 셋놈 넷놈 닷째놈 엿째놈 잇놈이라 하다. (537~538쪽.)

여섯 동무들은 한놈의 부름을 통해 한 명씩 나타난다. 이는 한놈이 자기 안의 또 다른 자아들을 불러들임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던 수많은 자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무들을 얻음으로써 그는 이제 무의미한 자아분열적인 싸움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 일차적으로 자기 안의 '비아'를 분명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섯 동무들이 출현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동서남북은 바로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놈이 우주의 시공간을 압축하고 있는 소우주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한놈은 신채호가 역사전기소설에서 형상화한 민족영웅들처럼 태생부터 비범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한계를 내재한 인물인 것이다.

인간의 한계는 끝없는 욕망에 부추김을 당한다는 것으로, 한놈과 여섯

동무도 이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숙명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동무들은 세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씩 무너진다. 첫 번째로 고됨벌에서 잇놈이 육체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낙오되고 만다.

이제 남은 여섯 명은 서로를 다독이며 황금산에 다다른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쌍의 옥동자가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들의 노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다.

> 잰 사람이 그 누구냐 내 이 山을 내여 주리라. 이 山만 가지면 옷도 잇고 밥도 잇고 高臺廣室 놉흔 집에 足過平生 잘 살리라. 이 山만 가지면 맛아들은 皇帝되고 둘째 아들은 諸侯되고 세째 아들은 芭蕉扇 밧고 네째 아들은 쌍가마 타고 네 압헤 절하리라.
>
> 이 山을 가지랴거던 檀君을 바리고 나를 한아비하며 震壇을 더지고 내 집에서 네 살님하여라. 이 山만 차지하면 金剛石으로 네 갓하고 眞珠구슬로 네 목도리하고 紅寶石으로 네 옷 말너주마 잰 사람이 그 누구냐 너희들도 어리석다 싸움에 다달으면 네 목은 칼바지며 네 눈은 살관혁이며 네 몸은 탄알밥이다. 人生이 얼마라고 호강을 실타고 압흔 길로 드느냐. 어리석다 불샹하다 너희들 (540쪽.)

옥동자는 한놈 일행에게 단군을 버리고 황금산에서 안락하게 일생을 즐기라고 종용한다. 유한한 인생,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는 역사의식도 가비와의 싸움도 외면하라는 것이다. 이에 엿놈이 황금의 유혹에 무너지고 만다.

남은 한놈 일행은 다시금 님의 싸움터로 가야만 하는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담금질한다. 그리고 새암에 도착하여 한 목소리와 대화를 한다.

> “그러면 네 일흠이 새암이니 남의 집과 남의 나라도 만히 망쳐겟고나.”
> “암, 그럼. 檀君神祖째에 내 비록 이 마음이 잇스나 道德의 아래라 감히

나타내지 못하다가 夫餘의 末年부터 내 일흠이 비로소 나타날새 金蛙의 아들들이 내 맛을 보고는 東明聖帝를 죽이랴 하며 (중략) 나의 물결이 가는 곳이면 반다시 禍患을 내여 三國의 强盛이 더 느지 못함이 내 솜씨에 말미암음이라고도 할지니 (중략) 百濟에 들매 義慈의 君臣이 서로 새암하여 成忠이며 興首며 階伯이 갓흔 賢相 猛將을 멀니하여 亡함이 일으며, 高句麗에 들매 男生의 兄弟가 서로 새암하여 平壤이며 國內城이며 蓋牟城 갓흔 名城을 敵國에 밧처 悲運에 빠지고, 福信은 萬古의 名將으로 豊王의 새암에 掌心 뭬이는 惡刑을 받어 中興의 事業이 쑴결로 도라가며" (541쪽.)

새암은 바로 질투의 강이다. 새암은 역사상에 일어난 영웅들의 고난이나 국난 등이 모두 질투에서 말미암은 것이며, 이 때문에 결국 금수강산에 피비린내가 나게 됐다고 말한다. 일행은 질투의 강을 건널 수 있으리라 여기지만 결국, 넷놈이 가장 앞서 뛰는 셋놈을 질투하여 죽이고 넷놈은 그 벌로 태워 죽임을 당한다. 이는 곧 불같은 질투의 감정에 넷놈 스스로 소멸을 자초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한놈과 둣놈, 그리고 닷놈만이 드디어 가비와 싸울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지휘자의 전술이 잘못되어 님의 군사가 대패하고 만다. 이에 둣놈은 청산백운문(靑山白雲門)에 사슴 친구나 찾겠다며 도피하듯 떠나버리고 닷놈은 적진에 투항해 버린다.

이렇게 한놈의 분신인 여섯 동무들은 모두 현실의 욕망에 무릎을 꿇고 만다. 인간은 원래 본능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들은 바로 한놈 안의 원초적인 본능, 이드(i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1] 고통 없는 안락한

11) 이드Id는 '그것(it)'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본능욕동'을 지칭한다. 이드는 다음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정신 에너지의 원천이다. 둘째, 정신의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인 1차 과정이다. 셋째, 쾌락원칙과 해탈원칙을 지향하는 이드는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파괴적인 충동이다. 넷째, 이드는 좀처럼 변하지 않으며 보수적이다. 다섯째, 이드의 에너지는 상당 부분 자아에 이전할 수 있다. 여섯째, 이드는

삶에 대한 희구, 그리고 물질에 대한 한없는 욕망, 타인에 대한 끓어오르는 질투의 감정, 절망적인 현실에서 속세를 버리거나, 혹은 그 반작용으로서 더더욱 현실 논리에 집착하는 것 등은 속세의 인간들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성정(性情)들인 것이다.

여섯 동무들처럼 속세의 인간 역시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며, 그 욕망으로 파멸을 자초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새로운 욕망들 속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이는 인간 생명의 한계를 자각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기 초월적인 인식을 통해서만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섯 동무들이 모두 떠나가고 이제 한놈 혼자만이 남는다. 일시적인 모든 욕망들, 한놈 자신 안의 '비아'를 걷어내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일곱 번째 한놈이라 할 수 있다. '7'은 모든 세속적 욕망과 시험을 넘어서는 자기 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12] 이는 곧 불교에서 말하는 '칠각분(七覺分)'[13]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초자아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위의 책, pp.297-298 참조.

12) '7'은 "6종류의 윤회세계(하늘, 인간, 아수라, 아귀, 짐승, 지옥에 해당하는 윤회세계)를 벗어날 사람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다음에 오는 7은 윤회세계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경지인 해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7을 해탈수(數)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기현, <인간의 생명과 존엄>, ≪경북일보≫, 2009, 05, 06 참조.

13) 불도 수행에서 참과 거짓, 선악을 살피어서 올바로 취사선택하는 일곱 가지 지혜. 택법각분(澤法覺分), 정진각분(精進覺分), 희각분(喜覺分), 제각분(除覺分), 사각분(捨覺分), 정각분(定覺分), 염각분(念覺分)을 이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참조.

러나 한놈 역시 여섯 동무의 삶에서 얻게 된 몇 번의 성찰로써 완전히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러한 욕망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채 남아있는 욕망과 새롭게 일어나는 욕망들은 또 다시 그의 의식을 침범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놈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욕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가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자기 수양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한놈의 초자아 - 꽃송이, 을지문덕 등

한놈을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인물들은 꽃송이, 을지문덕, 강감찬 등으로 서사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놈이 속세의 욕망으로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를 억누를 수 있는 대의적인 가치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추동한다. 특히 이들은 한놈을 구도의 과정,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신(神)과 같은 존재로서 한놈 마음의 전 영역, 즉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는 그의 억압된 욕망까지 통찰할 수 있는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한놈의 초자아라 볼 수 있다.

"초자아는 삶의 목표, 양심, 금지 명령, 죄책감 등의 정신 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정신 활동이다. 정신 내면의 관찰자인 초자아는 자아에 대해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는 '상급 기관'의 역할을 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초자아는 자아에게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명령하며, 상벌을 내리는 재판관 기능을 한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와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는 목소리 역시 초자아에서 기인한다. 초자아는 자아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아

이상(理想)' 내지 완전성의 모델이다."[14]

한놈의 초자아로 볼 수 있는 여러 인물들 역시 인간 세상의 도덕적인 규범과 가치, 그리고 양심의 최고 정점에 위치한 완전무결한 존재로서 한놈의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한놈의 초자아로 볼 수 있는 인물은 천관(天官)이다. 그는 "人間에는 싸홈뿐이니라. 싸홈에 니기면 살고, 지면 죽나니 님의 命令이 이러하니라." (514쪽.)며 무기력한 한놈에게 싸움의 세계로 나갈 것을 추동한다. 그의 명령은 번뇌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단행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언명하는 것으로서 인간인 한, 한놈 역시 이러한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다.

둘째, 역사의 시공간을 상징하는 꽃송이다. 그는 을지문덕의 참혹한 싸움에 눈을 감는 한놈에게 "한놈아 눈을 떠라. 네 이대지 약하냐? 이것이 宇宙의 本面木이니라. 네가 안이 왓스면 할 일 업지만 임이 온 바에는 싸움에 參加하여야 하나니 그러치 안하면 도로혀 너의 責任만 放棄함이니라. 한놈아 눈을 쌀리 떠라." (516쪽.)라며 한놈에게 역사적 책임의식을 각성시킨다. 또한 을지문덕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던 한놈에게 "울음을 썩 그처라. 世上일은 슯다고 닛는 것이 안이니라." (517쪽.)며 한놈의 비애감이 허무주의적인 패배감으로 물들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특히 꽃송이는 왼몸과 오른 몸의 자기 소모적인 싸움을 질책하고, 한놈이 여섯 동무로 상징되는 자기 욕망과의 싸움을 단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인물이다.

셋째, 을지문덕이다. 그는 한놈에게 구체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인물로서 한놈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육계(肉界)의 삶이 곧 영계(靈界)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말함으로써 투쟁적인 삶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

14) 이창재, 앞의 책, pp.309-311 참조.

"靈界는 肉界의 射影이니 肉界에 싸움이 쓰치지 안는 날에는 靈界의 싸움도 쓰치지 안느니라. (중략) 소가 개를 나치 못하고 복숭화나무에 오얏열매가 맷지 못하나니 肉界의 싸움이 엇지 靈界의 평화를 나흐리오. (519쪽.)

을지문덕과의 만남을 통해 한놈은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역사서들을 짓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와의 대화를 통해 역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한다. 이로써 한놈은 내외부의 '비아'들과 싸울 힘을 얻게 된다.

이천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한놈을 일깨우는 을지문덕의 이러한 목소리는 곧 역사의 해답을 얻지 못해 방황하던 한놈의 자기 대화라고 할 수 있다. 한놈은 을지문덕에게 '선배님'이라며 극존칭을 쓰다가 "선배님이시여. 악가 동편 서편에 갈너셔서 싸우던 두 陣이 다 어늬 나라의 陣이냐?" (518쪽.) "그가 누구냐?" (526쪽.) 등으로 을지문덕의 반말투를 빌려 쓰기도 한다. 이는 을지문덕과 한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답이 결국은 한놈의 자기 대화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한놈의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던 역사적인 억압과 물음들이 을지문덕으로 표상된 초자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역사적 울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놈은 스스로 본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대의적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넷째, 여섯 동무들이 모두 떠난 후, 방황하던 한놈에게 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님의 목소리 역시 한놈의 초자아로 볼 수 있다.

"쌘 칼을 다시 박으랴."

소리를 질으고 압흘 헤치며 나아가니 님의 갓흔 보이지 안하나 님의 말소리가 귀에 들닌다.

"네 오나냐, 홀로 오나냐?"

하시거늘 한놈이 고되고 외로워 엇지할 줄 모르던 차에 仁慈하신 말슴의

늑김을 받어 눈에 눈물이 핑 돌며 목이 탁 메여 겨오 대답하되

“예. 홀로 옴니다.” (중략)

“이 칼은 三千九百二十五年 壬辰倭亂에 義兵大將 鄭起龍이 쓰던 三寅劍이다. 네 이것을 가지고 敵陣을 처라.”

하시더라. 한놈이 칼을 받어들고 나서니 하늘이 개이며 해도 다시 나와 범과 사자들은 모다 달어나 압길이 탁 틔이더라. (544~545쪽.)

욕망을 억제하며 싸움터까지 온 한놈, 그러나 속세의 가치들을 온전히 버려야만 하는 이 마지막 관문의 순간에 그는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고,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이는 곧 초자아의 도덕적 규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놈의 자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님은 뺀 칼을 다시 박을 수 없다 이르고 그를 싸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추동한다.

님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추스른 한놈은 다시 싸움에 임한다. 이렇게 자기를 넘어서는 순간, “하늘이 개이며 해도 다시 나와 범과 사자들은 모다 달어나 압길이 탁” (545쪽.) 트인다. 범과 사자들은 한놈을 두렵게 만드는 죽음에의 공포, 외로움, 전의 상실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초적인 두려움은 초자아의 도움으로 자아의 힘을 강화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강감찬이다. 한놈은 마침내 님의 싸움터에 다다랐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은 쉽사리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놈의 욕망들은 그의 여정 곳곳에 머물러 있다. 말하자면 억압된 욕망들이 한놈의 무의식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한 차례의 자기투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의식이 무의식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속 억압할 경우, 반드시 소외된 무의식의 보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정신의 기본 원리이다. 과도한 2차 억압으로 의식과 무의식 간의 골이 깊어지면 의식의 질서는 거대한 무의식에 습격당해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바

로 정신질환 혹은 치명적 실수이다."[15]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던 한놈의 욕망들이 그의 의식을 공격하는 것은 한놈과 풍신수길과의 대결로 표출된다. 그는 역사의 적인 풍신수길과 싸움을 벌인다.

> "뎌놈이 곳 壬辰倭亂에 朝鮮을 드럽히랴던 日本關白 豊臣秀吉이라."
> 하거늘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한놈이 엇지 용서가 잇스리오. 두 눈에 쌍심지가 올으며 憤氣가 뎡수박이를 쿡 질너 곳 한칼에 이놈을 고기쟝을 맨들리라 하야 힘끈 견워치랴 한즉 豊臣秀吉이 썩 처다보며 뱅그레 웃더니 그 怪惡한 얼골은 어대 가고 一代美人이 되어 안젓는대 쏫본 나뷔인 듯 물찬 제비인 듯 도다오는 半月인 듯 한놈이 그것을 보고 팔이 쩔으르해지며 차마 치지 못하고 칼이 짱에 덜넝 나려지거늘 (545쪽.)

한놈은 충만한 기개로 전의를 불태우지만 풍신수길이 미인으로 변하자 곧 전의를 상실한다. 그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이는 한놈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원초적 욕망과 이를 제어하는 초자아 사이에 엄청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절망 끝에서 한놈은 지옥의 순옥사자(巡獄使者) 강감찬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美人을 사랑하지 못하오릿가?"
> 姜邯贊이 짱 위에 노힌 칼을 가라치며
> "이 칼 노흔 자리에 다른 것도 또 노흘 수 잇느냐?"
> "안될 말임니다. 한 물건이 한 시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잇슴니가?"
> 姜邯贊이 이에 손을 치며

15) 위의 책, p.106.

"그러하니라. 한 물건이 한 시에 한 자리를 못 차지할지며, 한 사상이 한 시에 한 머리속에 갓히 잇지 못하나니, 이 줄로 밀워 보아라. 한 사람이 한 平生에 두 사람을 가지면 두 사랑에 한아도 일우기 어려운 고로 니야기도 일으되, 두 졀개가 되지 마라 하니 그 부졍함을 남으램이니다." (중략)

한놈이 졀하여 그 고맙한 뜻을 올니고 그러나 地獄에서 나가게 하여 달나 하니 姜邯贊이 갈오대

"뉘가 못 나가게 하나냐?"

"못 나가게 하는 이는 업사오나 몸이 쇠사슬에 묵기여 나갈 수 업슴니다."

姜邯贊이 우스시며

"뉘가 너를 묵더냐?"

하니 한놈이 이 말에 大徹大悟하여

"本來 묵기지 안한 몸을 어대 풀 것이 잇스리오?"

하고 몸을 쓸치니 쇠사슬도 업고 한놈의 한 몸만 웃둑하게 섯더라. (551~552쪽.)

강감찬의 말을 통해 한놈은 두 개의 절개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의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망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한다. 그러자 강감찬은 "뉘가 너를 묵더냐?" "本來 묵기지 안한 몸을 어대 풀 것이 잇스리오?" (552쪽.)라며 반문한다. 강감찬은 이 싸움이 한놈의 마음에서 일어난 싸움, 즉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되어 일어난 현상임을 간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섯 동무, 그리고 풍신수길과 일으킨 갈등들, 욕망에 휘둘려 지옥에 떨어진 것, 쇠사슬에 묶여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한놈의 욕망과 마음의 분열 때문에 생긴 것으로서, 이는 결국 한놈 스스로가 만든 자기 족쇄였던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욕망의 부질없음을 부단히 깨닫고 스스로 대의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

한놈은 이렇게 여섯 동무에 이어 애욕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이룬다. 이후, 그는 천국과 지옥은 상존(相存)하고 있으며 이를 가르는 것 역시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님나라로 간다. 이는 바로 한놈이 초자아의 도움으로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를 의식화함으로써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는 자아의 조절과 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여섯째, 님나라에서 한놈이 만난 한 어른이다. 그는 공자, 석가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하늘을 흐렸다고 말하며, 이를 깨끗이 쓸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놈은 역사를 바로잡고, 정화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한놈은 "그러면 한놈부터 내 責任을 다 하리라." (556쪽.) 이르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 이렇게 하늘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곧 한놈의 자기정화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곱째, 님나라에서 하늘을 깨끗이 하던 한놈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좇아 '도령군 놀음곳'에 이른다. 이 목소리는 한놈이 자기소임을 다하여 얻은 자기 자각의 목소리이다. 이후, 도령군 놀음곳에 도착한 한놈은 문 앞을 지키는 장수를 만나 이곳에 입장할 자력을 논하는데 이 장수는 한놈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여덟 번째 초자아라 볼 수 있다.

"님나라로부터 구경하려 왓스니 들어가게 하여 주소셔."
한즉
"네가 바칠 것 이서야 들어가리라."하거를
"밧칠 것이 무엇임니가? 돈임닛가, 쌀임닛가, 무삼 보배임닛가."
한대
"그것이 무삼 말이냐? 돈이던지 쌀이던지 보배이던지는 人間에서 貴한 것이오. 님나라에서는 賤한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밧칠닛가?"

> “다른 것 안이라 대개 情이 만코 苦痛이 깁흔 사람이라야 우리의 놀음을 보고 깨닷는 배 잇스리니 네가 人間三十餘年에 눈물을 몃 줄이나 흘엿느냐? 눈물 만흔 이는 情과 苦痛이 만흔 이매 이 놀음에 참여하여 上等손이 될지오, 그 남어는 中等손 下等손이 될지오. 아조 적은 이는 들어가지 못하나니라.” (559쪽.)

장수는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만이 도령군 놀음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른다. 말하자면 한놈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고민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만이 역사인식 위에 마련되는 축제의 장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놈은 이에 ‘나는 元來 無情하야 나의 人間에 對하여 뿌린 눈물은 몃 방울인가’ (560쪽.)며 반성의 눈물을 흘린다. 한놈의 이 눈물은 바로 내면의 충돌, 그리고 자아성찰을 통해 이루어낸 자기 화해의 눈물이다.

이처럼 이들은 한놈이 스스로 만든 욕망의 족쇄에 무너질 때마다 홀연히 나타나 그의 욕망을 제어한다. 하나이자 여럿이었던 한놈의 욕망들과 마찬가지로 꽃송이를 비롯한 이들 여덟 명 역시 한놈 안의 다양한 초자아들로서 그가 꿈꾸는 도덕적 가치의 표상, 이상적 자아를 상징하는 인물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초자아는 자아에게 ‘자아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아 발달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초자아는 또한 ‘도덕원칙’에 따라 자아에게 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 요구는 자아가 사회적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초자아는 원초적 공격성에 대항하는 심리적 힘이기도 하다. 인간의 공격성은 너무도 강력하기에 자아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 잔혹한 전쟁, 만성적 착취, 증오심 등은 정신의 일상 리듬을 깨뜨리며 요동친다. 따라서 무시무시한 힘을 지닌 초자아의 도움을 받아야 어느 정도의 통제와 대항이 가능하다.”[16]

한놈은 이러한 자신 안의 초자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자아의식을 확립하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역사인식, 인간애라는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본능과 도덕적 가치 사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특히 초자아들이 한놈의 욕망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이들 여덟 명은 불교에서 말하는 '팔계(八戒)'[17]의 변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놈은 초자아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의식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함으로써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내보일 수 있는 자이다. 이런 점에서 한놈은 강한 자아를 가진 진솔한 지성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식의 특성만이 유일한 가치로 인정받는 정신의 유토피아는 오히려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도덕적 인간이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식을 쌓으며, 자신의 무의식을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내하고 무의식을 부드럽게 변형시켜 의식에 드러내며, 타자의 무의식까지도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부정하고 억압하는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균형적 통합' 혹은 '정신분석적 대화' 관계를 맺어야 한다."[18] 한놈 역시 의식과 무의식의 투쟁을 통해 자기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기와의 화해,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타자를 포용하는 인간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16) 위의 책, p.315.

17)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와 여자가 육재일에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계행(戒行). 중생을 죽이지 말 것, 훔치지 말 것, 음행(淫行)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먹지 말 것, 꽃다발을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고 구슬로 된 장식물을 하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말 것, 높고 넓으며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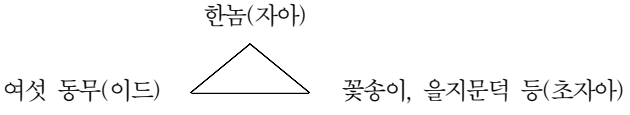
18) 이창재, 앞의 책, pp.106-107.

이러한 인간애는 한놈의 치열한 자기투쟁의 결과라는 점에서 관념적으로 비약하는 휴머니즘과는 차이가 있다.

살펴보았듯이 한놈은 다양한 인물들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만남을 이어간다. 이는 억압적인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꿈으로 재현돼 나타난 것으로서, 이러한 만남은 결국 한놈 안의 자기 대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놈의 여정은 곧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속에서 자기 평정에 이르는, 한놈의 지난한 마음의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미완의 서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꿈하늘>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해석해 보았다. 서사는 꿈을 배경으로 한놈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한놈의 본능적 욕망인 이드와 이를 통제하는 초자아들에 다름 아니었다. 이들의 관계를 마음의 구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놈은 여섯 동무로 상징되는 본능적 욕망과 꽃송이, 을지문덕 등으로 대표되는 대의적 가치들을 조율함으로써 님나라에 쓸모 있는 인물로 거듭난다. 그리고 서사는 한놈의 '인간애' 자각을 통한 욕망의 사회적 승화로 마무리되고 있다.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한놈의 자아의식 확장 역시 이

러한 인간애 실현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사에 등장하는 '아'와 '비아', 그리고 '님'과 '가비'의 투쟁은 결국 대의적인 가치에 이르고자 하는 한놈의 끝없는 자기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여정은 곧 자기에게 이르는 마음의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꿈하늘>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 간의 관계가 서사를 이끄는 주요 테마가 되며 <꿈하늘>이라는 제목은 꿈을 배경으로, 이상 세계에 도달하려는 한놈의 내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제목으로 보인다.

살펴보면 서사에서 드러나는 한놈의 모습은 신채호 자신의 모습에 다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유학자로서, 그리고 식민지 망명 지식인으로서 개인적, 역사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한놈의 여섯 동무는 바로 신채호의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들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불운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신채호의 강한 자아에 대한 욕망이 꽃송이, 을지문덕, 강감찬 등의 모습으로 현현된 것이며, 이들은 결핍된 현실을 보상하는 신채호의 이상적인 자아, 초자아들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신채호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현실 전복을 꿈꾸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서사는 신채호가 현실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 역사적인 상처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한 소설적 장치로서, 꿈이 현실이길 바라는 강력한 열망을 담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망명 이후 신채호의 현실인식 방법의 소설적 변환, 확대를 말해주는 것이다.

본고는 신채호의 대표작, <꿈하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신채호 문학의 근저를 이루는 작가의 무의식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의 소설 창작 활동은 신채호 자신의 자기반성과 수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소설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과 배경들은 자신의 삶을 핍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꿈하늘>은 불운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식민지 망명지식인의 자기 고백서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폐쇄적인 자기탐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투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문학에서 차지하는 신채호 문학의 정신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채호 소설에 대한 연구는 사상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학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열려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망명 이후의 소설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망명 전, 논설체로 쓰인 역사전기소설과는 차별화되는 서술 방식이다. 말하자면 그는 스토리텔링으로써 문학적 자가치료를 했던 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서사가 고백체 서술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여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현대소설의 고백체 소설, 여로형 소설의 원류로서 신채호 소설을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본 서사가 전통 몽유 서사의 양식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물 형상화를 어떻게 차용, 변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대전환기 몽유 서사물들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망명 이후 소설들에서 보이는 부성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신채호 소설의 영웅 형상화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 인간으로서의 단재 신채호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이는 결국 근대 사상사, 문학사에서 신채호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주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단재신채호전집』제1권~제10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

2. 논문 및 단행본

권영민,『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95.

_____,『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출판부, 2000.

길경숙,「박상륭 소설 정신분석학적 읽기 - '분열'과 '결핍 지향'의식을 중심으로 -」,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병민,『신채호 문학연구』, 아침, 1989, p.108.

김현주,「신채호의 역사 이념과 서사적 재현 양식에 대한 연구」,『상허학보』14집, 상허학회, 깊은 샘, 2005, 2.

_____,「신채호 소설의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관한 연구 - <류화전(柳花傳)>과 <익모초(益母草)>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제57호, 한민족어문학회, 2010, 12.

_____,「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어문학』제116집, 어문학회, 2012, 6.

_____,「단재 신채호 소설의 고아 인물 연구」,『한민족어문학』제62호, 한민족어문학회, 2012, 12.

민병수 외,『개화기의 우국문학 -한국문학과 민족의식-』Ⅱ, 신구문화사, 1974.

민 찬,「단재소설의 경로와 전통의 자장」,『인문과학논문집』34집, 대전대인문과학연구소, 2002.

박희병,「신채호의 근대민족문학」,『관학어문연구』22집,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97.

박중렬,「한국 근대전환기소설의 근대성과 계몽담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성문출판사 편집부 엮음,『불교학 대사전』, 홍법원, 1988.

서대석,「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한국학논집』3권 1호,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77.

서형범,「<꿈하늘>의 서사층위분석과 몽유양식 선택의 의미」,『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12.
신경득, 「단재 신채호소설의 민족주의적 연구」, 『논문집』 제7집, 건국대 대학원, 1978. 2.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양진오, 「강요된 근대와 거대서사의 기원」, 『실천문학』 54 여름호, 1999.
오선민, 「전쟁서사와 국민국가 프로젝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이경선,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 『한국학논집』 제6집, 한양대 한국학 연구소, 1984. 8.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8, p.76, p.215.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8, pp.184-186.
이선영, 「신채호의 민족사관과 민족문학 -<꿈하늘>에 대하여-」, 『오늘의 세계문학』, 민음사, 1976, 12, p.181.
_____, 「단재의 사상과 문학」, 『단재 신채호와 민족사관』, 형설출판사,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1980.
이승준, 『이청준 소설 연구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한국학술정보, 2005.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학지사, 2013, pp.96~97, pp.106~107, p.315.
정여울, 「꿈-서사의 민족담론과 계몽의 수사학」,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정진원, 「단재 신채호의 <꿈하늘> 텍스트 분석」,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텍스트 언어학』 제16집, 2004, 6.
정창범, 『작중 인물의 심층분석』, 평민사, 1978.
차승기, 「근대 계몽기 민족주의의 성격에 관한 고찰 -저항과 지배의 변증법-」, 『현역 중진작가연구Ⅳ』, 한국문학연구회, 국학자료원, 1999.
채진홍,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근대인관」, 『한국언어문학』 제55집, 한국언어문학회, 2005, 10.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3.
하정일, 「급진적 근대기획과 탈식민 문학의 기원」,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한자경, 『자아의 연구』, 서광사, 2003.
마르쿠제, 『에로스와 문명』, 김인환 역, 나남, 1989.

아니엘라 야훼,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이부영 역, 집문당, 2012.
장벨맹 노엘, 『문학 텍스트의 정신분석』, 최애영·심재중 옮김, 동문선, 2001, p.12.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04.
_____, 『정신분석 입문』, 최석진 편역, 돋을새김, 2011.
_____,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10.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 입문』, 김현수 옮김, 인간사랑, 2006.

3. 기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권기현, <인간의 생명과 존엄>, ≪경북일보≫, 2009, 05, 06.

Abstract

A psychoanalytic study on the *Dream Heaven* novel by Danjae Shin, Chae-ho

Kim, Hyun-Ju

This paper was to examine *Dream Heaven* with psychoanalytic perspective. In the dream, Hanom found a peace of mind through 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ness's conflict. Hanom's six companions symbolize his instinctive desires and Blossom, Euljimundeok, and so on symbolize social values. Hanom mediates them, By doing this he realizes humanity. After all, self and non-self's conflict means unfinished self conflict of the hanom, and his journey is the way to his own mind.

Development of narrative represents Shin, Chae-ho's oppressive life. The embodiment of the characters is originated from writer's unconscious desires and desire for an ideal self that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reality. Shin, Chae-ho like Hanom experienced the hope and despair in the unfortunate reality of a nation. Dream is a narrative technique to solve the personal, historical trauma and crisis. In this sense, It may be said that this novel is colonial intellectuals in exile, Shin, Chae-ho's self-confession.

Key Word : dream, psychoanalysis, subconsciousness, desires, the superego, repression, self-confession

김현주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조교수
주소 : (770-758) 경북 영천시 야사동 청구아파트 105동 1802호
전화번호 : 010-8530-7556
전자우편 : badalove2001@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